

傳하는 泉隱寺가 있어 佛龕이 保存되고 있음을 알았고 昨年 三月中旬 現品을 調査한 바 있어 寫眞과 圖面으로 간단히 紹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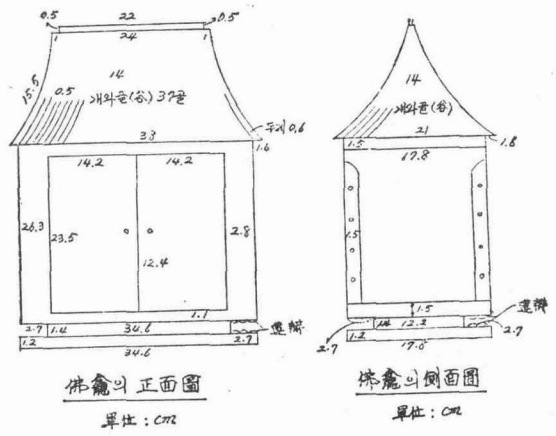
傳來의 經緯는 確實치 않으나 옛부터 極樂寶殿에 安置되었다고 하는 바 調査時에는 僧侶의 反對도 있어 苦難을 느꼈다. 銅製로서 内外를 鍍金하였고 全高 四三·三cm, 幅 三八cm, 側幅 二二cm의 우진각形이다. 瓦葺지붕의 四面은 넓이 〇·六cm의 커마루로 境界를 이루었으며 처마에는는 암막새形으로 銅板을 달았다. 용마루는 圓筒形을 이루고 그 兩에는 구멍이 있어 鴟尾를 달았던 痕跡으로 보였다. 四壁은 모두 表裏



二枚의 銅板을 合板 하여 점으로 못을 쳐서 造立하였는데 前面에는 分閣門을 模한 兩扉가 있고 그 裏面에는 蓮花上에 執劍憤怒形의 仁王立像이 두드러지게 鍍金되었고 表面에는 七寶紋寶相紋이 같은 手法으로 裝飾되었다. 內壁의 三面에도 同一 手法으로 角形高台上의 三尊像을 配置하고 鍍金하였는데 그중 正面만은 三尊以外에 僧形人物의 立像을 配置하여 群像을 이루었으며 兩側壁에는 華麗한 花

文이 下部에 裝飾되어 있다.

天井에는 全面에 寶相花文을 새겼고 그 中央에 多瓣稜形(縱一八cm, 橫一〇cm)을 凹刻하여 그 안에 寶相花文과 天部像을 새겼다. 內部下底에는 文樣이 없고 그 周圍를 覆蓮으로 둘러 壁과 境界를 表示하였으며 밑에 깔린 黃絹 榜석에는 三尊佛像을 安置하였던 자리가 남아 있으나 그 存否를 알 수는 없었다. 前面 左右柱에는 唐草文을 台座와 接續하는 곳에는 上 下로 仰覆蓮을 그 中間面에는 唐草文帶를 各各 浮刻하였다. 台座下底部에는 矩形으로 홈을 내어 銅合板으로 堅固하게 製作되어 있다. 지붕을 除外한 他部分의 鍍金은 正面과 內部만을 남기고 顏色하였다. 佛菩薩의 配置와 樣式 또는 裝飾紋이나 現存하는 類品(例如 德壽宮美術館 所藏品)과의 比較에서 高麗作으로 推定되었다. 大型의 稀品. 로서 山寺에 放置되고 있는 바 當局의 保護策과 再次的 調査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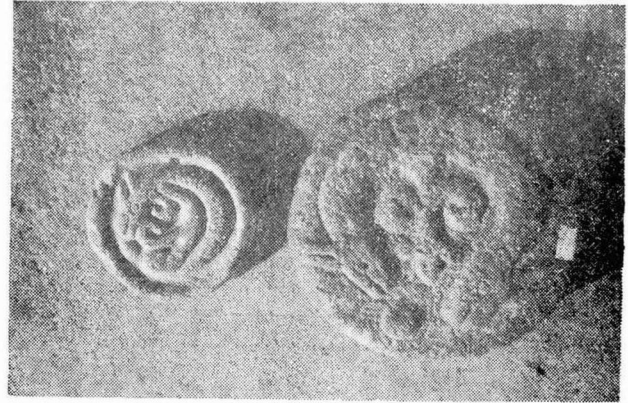


龍形紋圓盤石의 二例

洪 思 俊

動亂中 一九五一年 四月頃 扶餘邑官北里 扶蘇山南麓인 益生病院 後塙에서 出土되어 李德熙院長이 分館에 寄贈한 것이다. 厚 三cm의 花崗石圓盤으로서 徑二四·七cm인 바 表面에만 雙頭單身의 龍形文을 둥글

나 다만 身部에 斷線이 있고 尾部에 이르러 가늘게 또 頸下에서 長短二條가 身部를 따라 屈曲하였는데 長條의 先端은 分岐되어 雙鉤形을 이루고 있다. 다시 此品의 特異點으로서는 上身後部에 小圓一孔이 貫通되고 있는 것인데 用途와 더불어 注目되었다. 以上 兩品은 百濟代의 造形으로 推定되는 바 稱拙한 樣式과 彫法에서 龍形紋의 高古한 遺例이다.



계 半肉彫하였고 身部中央에는 中心線을 따라 一莖上下兩枝形과 頭上에 圓珠一個만을 새겼다. 兩頭에는 雙角이 길게 平行하였고 開口하였으며 눈은 圓形으로 點睛되었다.

二

前例보다 小形으로 厚三、五cm、徑一五、五cm의 花崗石圓盤으로서 今年十月 中旬頃 扶餘邑 東南里(鄭材木商家 屋內에서 우물 工事時 地下 十尺에서 出土되었다. 單龍形으로 前例와 類似하여 尖端을 이루었으며

安養의 磨崖鐘과 逸名塔碑

鄭 明 鎬

京畿道 始興郡 東部面 安養里 石水洞에 所在하는 이 遺蹟地는 安養驛에서 東北方 約二km 되는 遊園地에서 溪川越便의 一帶이다. 이 窟入口에는 新羅의 中初寺址가 있는데 現在址에는 柳柳産業이 建設되었지만 鐘竿支柱와 三層石塔(國寶第六、七號)

은 남아있으며 그庭園에는 古瓦가 散在하여 注目되는 바이다. 이 窟에서 東으로 約 五百m 되는 窟에 南南東을 向한 巖面에 磨崖鐘이 있는데 「朝鮮寶物調査資料」始興郡 二八番 崖鐘條에 「屹立セル岩ノ斷面ニ鐘ノ圖ヲ刻ス高サ八尺幅六尺位」라고 記錄되어 있을뿐이다. 이 鐘은 木架에 鐵索으로 달아놓은 形式인데 그 右便에는 僧形人物이 袈裟를 입

